

보도시점 : 2023. 6. 29.(목) 06:00 이후(6. 29.(목) 석간) / 배포 : 2023. 6. 28.(수)

지역별 탄소배출·흡수량 한눈에 본다

-6월 30일부터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본격 운영... 발전방안 지속 마련
- 탄소공간지도 발전 방안 세미나(6.29.) 열고 탄소공간지도 활용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(www.carbonmap.kr)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.
 -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(건물, 수송, 토지이용)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(격자, 행정구역 단위 등)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,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.
 -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,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, 읍·면·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·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,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 - 특히,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,
 -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(compact) 공간구조,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,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국토연구원,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‘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’를 개최하여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“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윤의식 (044-201-3706)
	도시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안연진 (044-201-3710)

참고 1

탄소공간지도 개요

□ 탄소공간지도 구성

- (정의) 도시 내 활동*으로 발생하는 부문별(건물, 수송, 토지이용) 탄소배출량과 도시 흡수원의 탄소흡수량 현황을 공간단위(격자, 행정구역 등)로 나타낸 지도

* 에너지 발전량 기준이 아니라 최종사용자(end-user) 기준으로 실제 탄소배출이 이루어지는 공간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



건물부문 용도지역단위
탄소배출량 시각화



수송부문 선형 탄소배출량
시각화



토지이용부문 행정경계단위
탄소흡수량 시각화

- (데이터 구성) 에너지사용량, 수송량, 임상도 등 관련 공공데이터*를 수집·활용, 건물·수송·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탄소배출·흡수량 산정

* 행정구역(국가공간정보포털), 격자데이터(국토지리정보원),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에너지 사용량(한국부동산원), 전국 주요 도로망(국가교통정보센터) 등

- (건물) 전체 건물(약 7.27백만동)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격자 내 포함된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합산
- (수송) 도로구간별 교통량(차종, 유종, 속도) 정보를 기초로 하여 도로 단위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탄소배출량을 할당, 격자단위로 변환
- (토지이용) 탄소흡수량 표출범위를 산림지로 한정, 임상도 데이터(산림청 제공)기반으로 임상 유형별(침엽수림, 활엽수림, 혼효림) 탄소흡수량 지도화

□ 탄소공간지도의 도시계획 분야 활용방안

○ 탄소중립형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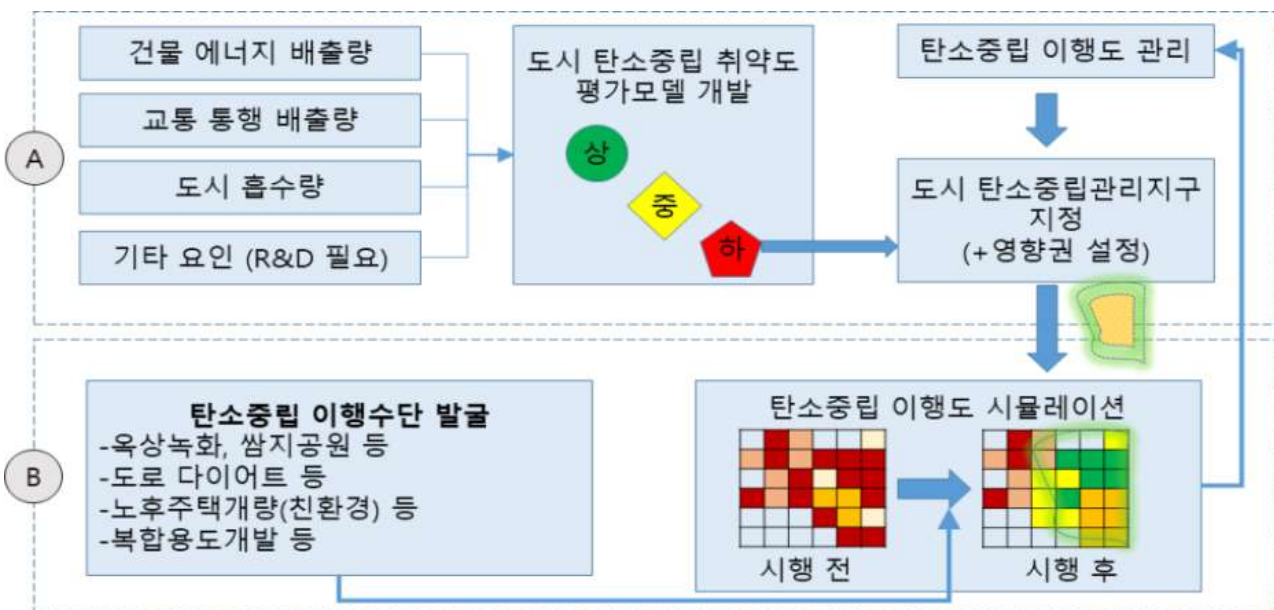
- 배출·흡수 현황을 지도로 파악하여 공간계획을 세우고(예: 컴팩트한 도시공간구조), 격자 또는 행정구역 단위의 현황 통계를 기초조사 항목으로 활용 가능

○ 탄소배출과 흡수의 공간적 패턴과 변화량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활용

- (건물) 탄소배출량을 지도와 통계를 통해 파악하여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 적용 지역 파악
- (수송) 탄소배출량 지도와 통계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필요지역 파악
- (흡수) 탄소흡수량을 기초로 녹화 또는 공원 확충을 통해 탄소흡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파악 및 관련 정책 적용

○ 탄소중립정책 적용지역 설정과 정량적 목표관리

- 배출원단위별 배출 및 흡수특성 등을 종합한 탄소중립 취약도를 분석하여 계획수립대상 지역에 대한 탄소중립 취약성 등급화
- 탄소중립 우선 관리 대상지역을 지구로 설정하여 관리



참고 2

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 개요

□ 세미나 추진계획

- (제목) '탄소공간지도 활용 및 발전 방안' 세미나
- (일정) '23. 6. 29.(목) 10:00~12:00
- (장소) 세종(정부청사 대회의실) 등
- (참석대상) 도시정책관(주재), 도시정책과장, 주요 광역지자체, 건설연, 국토연, 환경연, 행복청, LX, 관련 전문가 등 약 50명
 - ※ 토론자: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,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, 환경연구원 김태현 연구위원, (재)국제기후환경센터 오병철 실장, (주)국토비전컨설팅 이승우 대표
- (주요내용) 탄소공간지도 구축 현황, 탄소공간지도 도시계획분야 활용 방안, 탄소공간지도 운영방안 등 세미나를 통한 전략·방향성 도출

시 간		내 용	비 고
09:30~10:00		접 수	-
1부	10:00~10:10 (10분)	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	LX연구원 (원석환)
	10:10~10:20 (10분)	개회사	도시정책관
	10:20~10:30 (10분)	(제1주제) 탄소공간지도 구축 개요 및 경과	건기연 (정승현)
	10:30~10:40 (10분)	(제2주제) 탄소공간지도 도시계획분야 활용 방안	국토연 (손재선)
	10:40~10:50 (10분)	(제3주제) 행복도시의 탄소중립과 탄소공간지도 활용계획	행복청 (장태성)
	10:50~11:00 (10분)	(제4주제) 탄소공간지도 운영 방안	LX (박종덕)
2부	11:00~11:50 (50분)	활용·발전방안 토론	전체
	11:50~12:00 (10분)	폐회사	도시정책관
12:00		기념촬영 및 해산	